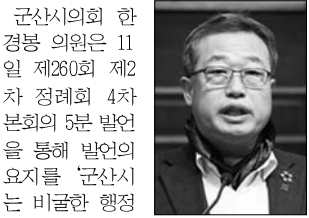


“시민 이익 위한 행정 추진해야”

한경봉 군산시의원, 5분발언서 신시도 자연휴양림 진입로 사업 등 관련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11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발언의 요지를 ‘군산시는 비굴한 행정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소개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한 행정을 추진할 것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는 지난 2021년 산림청의 신시도 자연휴양림 진입로 사업을 위해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7-10번지의 임야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였고 ‘사용허가 토지에 대한 공익사업 필요시 또는 확포장공사로 인한 민원 등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 시, 토지사용 승낙 취소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며 “2023년 8월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군산시는 산림청의 무단 점유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사용허가 시 측량은 고사하고 현장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아 군산시 소유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군산시는 산림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고, 서둘러 측량을 실시하여 이를 확인하였는데 무단 점용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의 농지 진입로가 좁아져 차량운행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림청은 이 사안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임야 소유자인 수도과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3항을 들어 산림청과 등기교환을 추진하고, 건설과는 농여촌도로 기본계획 고시를 변경한다는 대응책을 제시했다”고 했다.

특히 “문제를 발생시킨 산림청은 아랑곳하지 않는데 군산시민 손해를 감수하는 행정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군산시는 2019년 장자도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청에 토지교환 협의를 요청하여 2022년 최종 완료하였으나, 산림청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장자도 토지교환에 있어서 대상 토지에 있는 불법건축물 철거는 군산시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토지교환 추진 전 불법건축물 철거 대집행을 요구한다면 교

환 불가리는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가 산림청 소유인 현재 상황에서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해 대집행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지만 군산시에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는 ‘토지보상법’에 의거, 불법건축물에도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고 철거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불가하다”며 “결국 군산시가 시민의 혈세 10억 원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토지의 불법건축물 철거 예산이 2022년 추경가 8억 원 이상이었는데, 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관련 부서 어디도 보상비나 이주비 등 철거예산 산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취득 예정 장자도 임야 4,524.2㎡, 등기교환 대상 임야도 5만1,984㎡에 대한 추정가액 총 2599백만 원의 토지교환 동의안이 지난 8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9:2로 가결되었다”며 “지난 2월 16일, 8월 31일 두 차례 부결된 안전안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의회는 11일 군산시의회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군산시민에게 올 한해 새만금을 둘러싼 최대 난제를 위해 단합해 주심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새만금 둘러싼 난제 단합에 감사”

군산시의회, 송년 기자회견 통해... 3개 시군 통합발전 모색 제안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11일 군산시의회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군산시민에게 올 한해 새만금을 둘러싼 최대 난제를 위해 단합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함께 군산의 새만금을 지켜낼 뿐 아니라 새만금 메가시티 등 3개 시군의 통합발전을 모색하여 전라북도의 내일을 희망으로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시의회는 브리핑에서 “올 한해,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와 새만금을 둘러싼 최대 난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거친 풍랑에 맞서 함께 싸웠으며, 힘든 상황이었지만 동지들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이 확고해졌고, 군산 발전을 위한 사명감은 더욱 견고해졌다”며 “내외적인 폭풍우 속에서 서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시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 덕분이다. ‘군산시민은 역시 위대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겼고, 우리 군산시의회의는

위대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했기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해에 23명의 군산시의회 의원들도 위기 때마다 저력을 발휘하는 역전의 명수, 군산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새만금 사수, 물론 의정에서도 남다른 활동을 펼쳤다”며 “역대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검증을 철저히 했고, 지난 60년 만에 역대급 물 폭탄에 군산의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지정·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하였다”고 했다.

또한 “전라북도의 의료인프라 축소와 인구유출, 지방소멸 가속화가 계속되는 이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였다”고 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고맙단 말 한마디면 충분”... 익산시 청렴 분위기 확산

5월 청렴 추진단 구성...자진신고 사례 증가 등 가시적 효과 나타나

익산시가 청탁금지법 자진신고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5월 청렴 추진단을 구성한 뒤 계약과 인허가, 보조금 등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 관리를 실시한 결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청렴골든벨·청렴캠페인 등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활동은 물론 분야별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청렴 소통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공직자가 선물을 받았을 때 즉시 자진 신고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최근 익

산시의 한 행사와 관련해 보조사업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떡 2박스를 전달한 사례가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으나, 보조사업자는 떡을 사무실에 두고 돌아갔다. 해당 공무원은 즉시 익산시 감사위원회에 선물 수수를 자진신고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해 보조사업자에게 떡을 돌려줬다.

해당 공무원은 떡을 돌려주며 “물질적인 감사 표시가 없어도 따뜻한 감사 인사 한마디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에 유사한 신고 사례가 몇 차례 더 접수됐으나, 대부분 자진신고로 적법하게 처리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해 공직자가 선물을 받거나 선물제공자와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주요 사례를 내부 전산망에 공유해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청탁금지법 자진신고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총력 주문

정현을 시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의 지역 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조치에 총력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9일 북부청사 내 가족방역 상환실과 용동면 거점 소독초소를 찾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새벽까지 살처분을 진행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는 가족방역예방방범 살처분 명령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H5 항원 검출 즉시 해당 농가 2개소(총계 88,500마리)와 발생농장 500㎡이내 1개소(총계 25,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시 방역차량 3대, 축협공동방제단 4개단, 방역방제기 3대를 동원해

철새도래지 및 가금 농가에 대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거점 소독초소 3개소와 통제초소 4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 발생농장 인근 통제초소 2개소와 사료 환적장 2개소를 설치 완료했다.

간접사체에 대비해 관내 살처분 업체의 기기 점검 및 동원 인력 사전교육과 협조 요청을 완료하는 등 유기적인 방역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병원성 AI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신식품 가리비 양식어장 개발사업 성공

군산시가 해양별 적정 양식 품종에 대한 시범연구를 통해 서해안 최초로 고부가가치 신식품인 가리비 양식어장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군산 해역에서의 천해 양식은 대부분 김 양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지속되는 환경변화로 해양환경 또한 변화되어 김 생산량이 감소되어 김 양식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발생하는 등 김 양식어장에 많은 어려움이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어업인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와 신식품 패류(가리비) 양식어장 개발사업을 위탁 체결하고, 시비 3억원을 투입하여 해안가리비 치배를 육도면 비안도, 선유도, 방축도 해역에 입식을 시작으로 시험양식에 돌입, 성공적인 가리비 시범양식을 위해 주기적인 현장 조사와 모니터링 실시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 영등1동서 현장 행정

익산시의회 김진규 의원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들은 11일 우리 동네 행복 더하기(+) 2023년 마지막 현장 행정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행정은 영등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등1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위해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다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영등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은 주민자치회 3개 분과(자치분과, 생활봉사분과, 홍보문화분과) 운영, 주민들의 방문 및 의견수렴 대응을 위한 상시 근무자 필요 등을 건의하며 “합법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